

# “무주, 도내 출산율 최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은 사회복지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내 출산율을 비롯해 위원회 여성 참여율, 장애인생 산품 구매 의무 비율에서 최저수준의 불명예를 기록한 무주군의 사회복지 업무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꼼꼼한 일처리와 분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가장 먼저, 사회복지에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이 일반행정업무에 보는 등 사

## 이해양 군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장애인복지담당에서 출산업무도 맡아”

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분장 부적절성과 출산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작은 업무이관과 장애인복지담당에서 출산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수년간 대두돼 온 경로순환버스 정원 초과 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차량점검, 안전사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황이 열악한 청소년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업무에 었

박자를 내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정부부처 정책을 언급하며 무주군에 대응방안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통제정책에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장려정책을 분석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무주군 세입재원에서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며, 소외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회계실무교육

무주군은 지난 25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무주군이 지방회계 통계센터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무주군 회계담당 및 신규 임용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사로 초빙된 행정자치부 회계제도와 오동원 주무관으로부터 △세출예산집행기준, △입부추진비, △재무회계규칙 등의 실무를 비롯해 △지출 시 지켜야 할 회계 기준 및 위반 사례 등을 들었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신규 공무원이라 아직은 업무가 서툴고 잘 모르는데 회계업무 체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배운 것을 업무에 잘 활용해서 무주발전과 군민행복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군 재무과 강창수 과장은 “이번 교육이 무주군 공무원들의 회계 직무

능력 향상과 함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투명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계실무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 연간 246만원 인건비 절감 · 330% 생산성 향상 효과

완주군이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농가의 작업능률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50여명의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용진고추작목반에 보급된 편이장비는 고추 시설하우스에 자주 실시하는 방제작업 효율성과 편리

를 위해 초미립 방제기를 도입하여 연간 330% 생산성 향상과 137만원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주감연구회에 보급된 편이장비는 감수확과 퇴비운반작업 등에 필요한 농용동력운반차를 도입함으로써 연간 16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246만원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이번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호흡기 질환

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 뿐 아니라 농작업에 따른 위험요소 감소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김중욱 소장은 “지속적인 편이장비 보급으로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농작업의 인체 유해요인을 개선하여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노동부담을 경감시켜 고령 및 여성농업인들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 드림스타트, ‘정천 지역아동센터’ 개소

진안군 정천면 지역아동센터가 지난 25일 정천면(상항길 45)에서 관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새롭게 개소식을 가졌다.

정천면은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두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던 지역이라 정천지역아동센터 개소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정천지역 아동센터 개소식에는 이항로 군수, 박

명석 군의장, 아동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정천지역아동센터는 19명 정원으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동요, 바둑, 오감테라피, 학습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차은숙 정천지역아동센터장은 “방과 후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던 정천면 지역아동센터를 열게 되어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정천지역아동센터가 정천지역의 아이들이 마음껏 이상의 날개를 펼치는 꿈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천지역 뿐 아니라 진안군 전체의 아동복지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석 의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공간인 지역아동센터가 진안군에 개소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건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의회 역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1500년 잠에서 깨어난 장수가야’ 행사

장수군은 공모사업인 ‘문화재지역주민공감정책사업’에 일환으로 최근 경북 고령의 대가야 후손 40여명 초청, 장수가야 지킴이 40여명과 장수향교와 논개사당 및 장수가야고분, 신성,

제철, 봉수)일대에서 ‘1500년 잠에서 깨어난 장수가야’ 행사를 개최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전상학 전주문화유산책임연구원의 ‘장수가야고분’을 시작으로 조명일 군산대학교박

관 조사연구팀장의 ‘장수가야 제철·봉수·산성’과 박일찬 고령군 문화유산추진단 문화재담당자의 ‘고령 대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이 마련됐다.

또, 화합의 장에서는 고령대가야후손들과 장수가야지킴이가 서로 어우러져 가이문화권인 두 지역이 서로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문화재지역 주민으로서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가이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는 평이다.

경북 고령의 대가야 후손은 “고령대가야 후손들은 지금까지 대가야의 변방인줄 알았던 장수지역에 훌륭한 가이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장수가야가 가야계속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오미자 홈쇼핑 방송 ‘호평’

### 장수산림조합, 브랜드 홍보 · 판로 개척 나서

장수산림조합(조합장 김중식)은 ‘장수오미자 판매촉진행사’를 최근 공영홈쇼핑방송(아임쇼핑)에서 50분간 홍보하며, 공영방송을 통해 준비된 오미자 세트를 완판하고 성황리에 방송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장수산림조합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장수오미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홈쇼핑 관측행사를 진행했으며, 장수오미자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농민들의 판로 개척에 발 벗고 나섰다. 호평이다.

장수 오미자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식품으로 비타민(RE)IRE, 칼슘21mg, 철 0.7mg, 비타민A 등 식물성 에스트로젠 니그란 함유와

베타카로틴, 비타민B1, B2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특히 40대 여성들에게 좋으며, 색깔이 좋아 다양한 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출처: 농촌진흥청 국가 표준식품성분표 생것 100g기준)

한상대 조합원은 “생산지는 농산물의 판로격정을 넓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장수오미자를 먹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중식 조합장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데 충실할 것이며, 제값 받는 농민과 보람 찾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무주군은 ‘실천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수요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주군은 올해 총 3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실천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은 우수 통수 단면 부족으로 폭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던 실천면 소재지(소천리 양지, 평지마을)의 우수관로(574m)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한상술 실장은 “사업 대상지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태권도원 주변 지역이어서 특별교부세 확보

의미가 더 크다”며 “국·도비가 결국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도와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수시로 살펴서 이에 맞는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실천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 이외에도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5억 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선수단 및 관객편의시설 조성사업 9억 원 등 총 33억여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을 기반으로 내년도에 있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특별블리스

### 완주군, AI 차단 방역 총력

완주군은 이달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금농가보호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신발축산과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해왔으며,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박성일 군수)로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유사시 총동태대응에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완주 IC, 이서 애릉부근 등 주요도로에 방역차단 이동통제소 2개소, 거점소독시설 2개소 총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AI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축협과 공조해 공동방제단 활동을 강화하여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가와 거점형식당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해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 번암 마실정터 바자회

장수군 번암면(면장 정태선)에서는 소재지활성화사업이다. 그린나래 공작소 동호회, 느티나무협동조합 합동으로 지난 25일 기부금 모금 마실정터 바자회를 시동강 천변공원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들이 기증한 중고물품 등을 판매했고, 많은 주민들의 나눔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색소폰, 풍물공연 및 버블공연과, 나무DIY목걸이 등 7개의 체험부스와 파전, 호떡, 어묵 등 먹거리장터를 운영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0일 신청 마감

진안군은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오는 30일 마감한다. 신청자격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업경영체여야 하며 이달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토양개량제 신청도 이달 말까지 변경·추가 가능하다.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의 종류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퇴비, 퇴비비료이며 지원금액은 20kg 1포대 당 비중에 따라 1,400원에서 2,0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사회복지협 저소득층 연료지원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송상모)는 동절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사립의 연료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작년까지는 연탄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등유 등 다른 연료도 지원하게 되어 폭넓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2주간 실사를 통해 선정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에 따른 에너지 사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빈곤층 난방비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연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에너지빈곤가구 가운데 장애가구와 노인, 아동 등을 우선순위로 72가구를 선정, 가구당 등유 200리터, 연탄 300장, 팥감 1톤을 지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25일 관내 여성지도자와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 무주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전개

지난 25일, 무주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무주종합수련원 및 무주읍 일대에서 관내 여성지도자와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특별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무주종합수련원에서 진행된 특별교육은 청예단 전북지부 홍경숙전문강사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특강을 실시하였다.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증가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파괴 및 청소년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쳐 왔던 아동·여성폭력

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교육을 마친 참여자들은 성폭력·가정폭력추방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아동·여성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 메시지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을 전달하며 피켓을 들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무주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에 담당하고 있는 무주군청소년상담센터 서정복 소장은 “앞으로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등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읍출산공무원모임, 쌀 기탁

장수읍출산공무원모임(회장 차주호)은 지난 25일 연말을 앞두고 관내 소외계층 및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20kg) 90포를 장수읍에 기탁했다.

바인호 장수읍장은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 정착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계획에 적극 동참해주는 장공회(장수읍출산공무원모임) 회장 및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탁된 백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주호 회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